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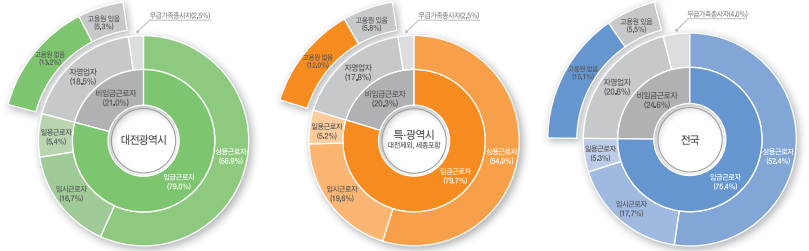


대전광역시 자영업자의 의료서비스 실태

자영업자, 1-4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, 임시직·일용직 종사자를 대상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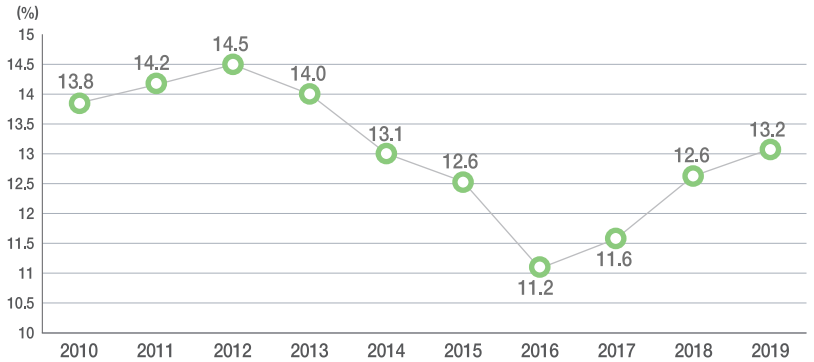
01 대전광역시 자영업자 현황

- 대전광역시는 다른 특·광역시 평균보다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높고,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은 2016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임
- 고용원을 두고 경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형편이 더욱 나빠지고 있기 때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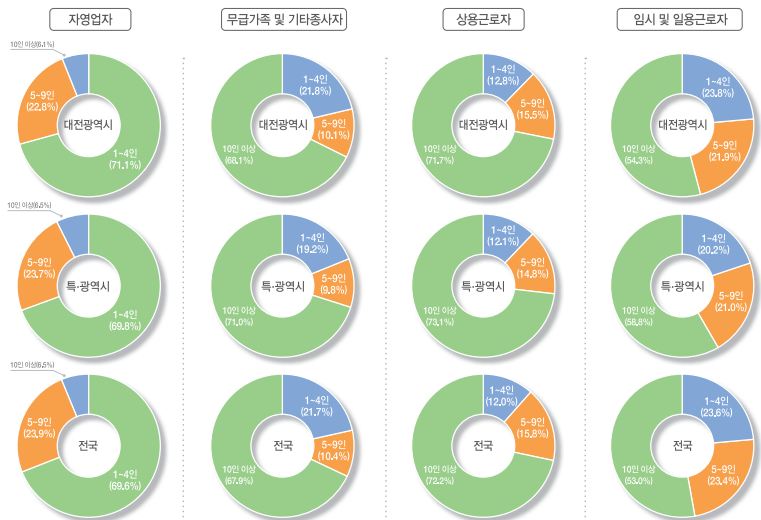
(중상상지위별 근로자 비중(2019년))

-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-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
-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-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파트너(무급가족종사자 포함)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 하는 사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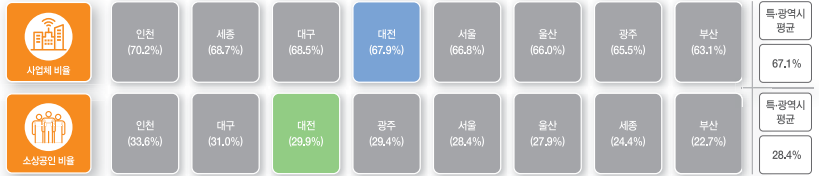
(대전광역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 변화 추이 (2010-2019))

- 전국 및 특·광역시 대비 영세 자영업자, 무급가족·기타종사자, 임시·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음
- 1-4인 이하 소규모 자영업자,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,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이 특·광역시 및 전국 평균보다 높음



(중상상지위별 사업체규모별 종사자 비중(2018))

● 전체 사업체 중 자영업자가 속한 소상공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



〈특·광역시 사업체 및 소상공인 비율 (2018)〉

0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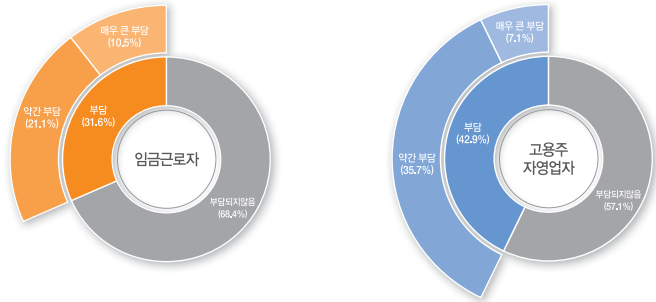
대전광역시
자영업자·저소득근로자
의료비 부담률 현황

- 대전광역시의 자영업자, 임시직·일용직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의료부담이 높은 편임
 - 고용주·자영업자(무급가족종사자 포함)는 임금근로자보다 개인별 소득수준은 낮고, 입원일수와 의료비는 많아 의료서비스 형편이 나쁜 상황
 - 이는 1~4명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와 임시직·일용직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나 정규직 근로자보다 의료서비스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

| | 일자리유형 | | 종업원수 | | 종사상지위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고용주·자영업자 | 임금근로자 | 10명 이상 | 1~4명 | 정규직 | 상용직 | 임시직 | 일용직 |
| 소득(천 원) | 25,017 | 28,122 | 25,946 | 32,657 | 54,810 | 29,176 | 16,520 | 10,731 |
| 의료비(천 원) | 846 | 656 | 552 | 701 | 523 | 526 | 657 | 829 |
| 입원일수(일) | 14.4 | 8.8 | 9.0 | 7.3 | 5.8 | 15.0 | 11.8 | 8.0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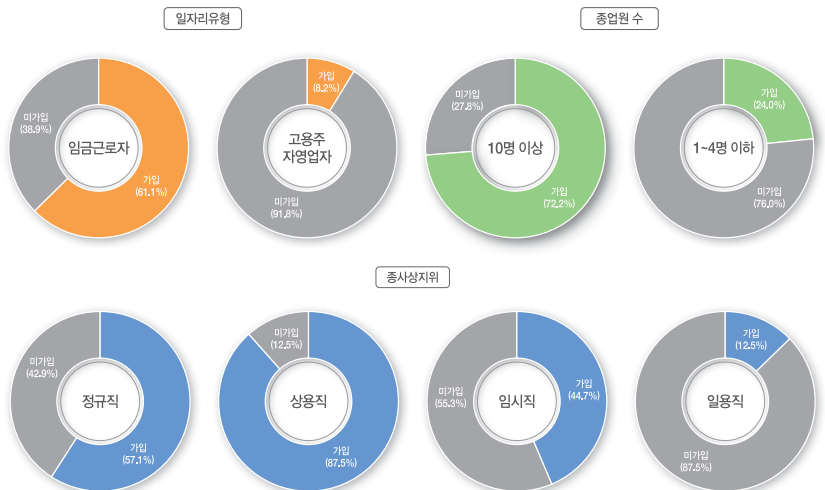
〈대전광역시 개인별 연간 입원일수·의료비·소득 수준 (2017)〉

● 입원 의료비는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줌



● 자영업자, 소규모사업체(1~4인) 종사자, 임시직·일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 저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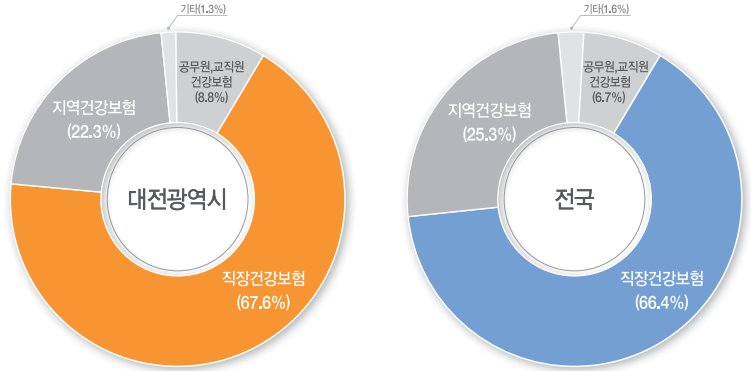
- 임금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61.1% 이상으로 높지만, 자영업자는 91.8%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
- 또한 1~4인 소규모사업체 종사자, 임시직·일용직에서도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음
- 이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저소득 근로자의 업무상 상병보장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의미



〈대전광역시 산업재해보험 가입 비율 (2017)〉

• 의료보장형태는 대부분 직장건강보험

- 대전광역시와 전국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가 각각 67.6%, 66.4%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역건강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음
- 대전광역시는 전국보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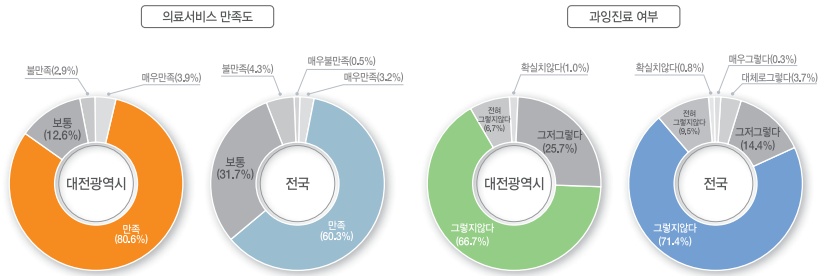
〈의료보장형태 (2017)〉

• 입원 시 의료서비스 만족도 매우 높음

- 입원 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전국과 대전광역시 모두 높음
- 특히 대전광역시는 매우 만족을 포함한 만족도가 84.5%로 매우 높음

• 대체로 입원 시 과잉진료 정도가 매우 낮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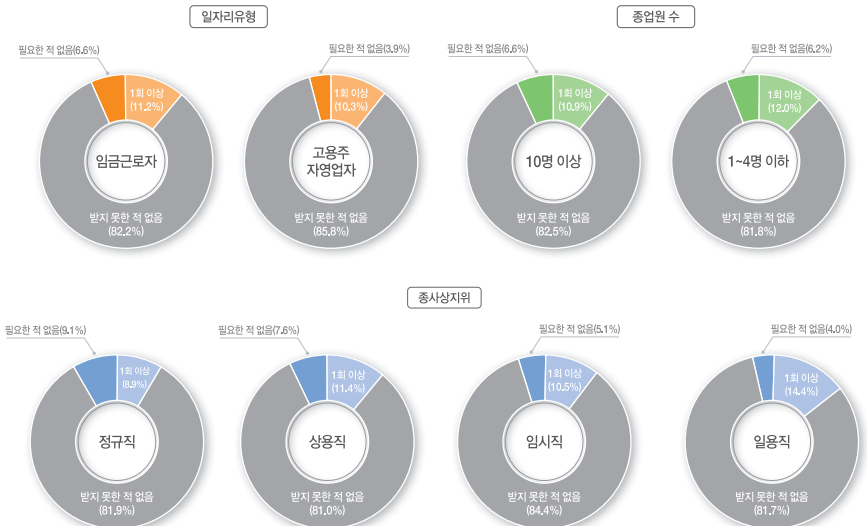
- 대전광역시의 경우 입원시 과잉진료를 받았다는 응답은 없었으며, 전국의 경우 4.0%로 매우 낮은 수준



〈입원 시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과잉진료 여부 (2017)〉

• 저소득근로자의 미충족 의료경험률이 높음

- 의료서비스를 1회 이상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1-4인의 소규모사업체 종사자나 임시직·일용직 근로자 등 주로 저소득 근로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

〈전국 지난 1년간 미충족 의료경험률 (2017)〉

